

校内유아방 女교사에 큰 인기

최근 딸들이 부부가 늘면 사립에게 아이를 맡기는데 서사내탁아소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많은 회사에서는 노사 협상 때 사내탁아소의 설치

를 강요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은 더욱 그렇다. 한류출연 아이와 떨어져 있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리반이 개설됐다. 병리반에는 삼지국교에 근무하는 22명의 교사 자녀 24명과 다른 학교 교사 자녀 12명 등 모두 36명

을 지원한 교사가 20여명 나가 국제적 수준인 이 학교 태권도팀에서 오빠 언니의 동작을 흉내내는 재롱을 부리고 있다.

현재 이같은 교내유아방은 전국적으로 서울 15곳, 경기 8곳, 부산 4곳 등 모두 32곳이 있으며, 수용 인원은 4백여명.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내유아방은 여교사들의 이 같은 고민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부천시원미구중동의 삼지국교(교장 黃魯性의 병설유치원)에는 지난해 6월 부천시내교사들의 35세 자녀들을 위한 「병리반」이 개설됐다.

이곳보면 유치원과 비슷하지만 유치원과 달리 하사오는 심리적 안정감이 더 큰 도움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인기덕분에 내년 3월 교원정기전보 때 비교 원이 적기 때문에 유아반을 당교사에게 충분한 월급을

내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이 더 큰 도움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인기덕분에 내년 3월 교원정기전보 때 비교 원이 적기 때문에 유아반을 당교사에게 충분한 월급을

교실공간에 스티로폼과 비닐을 깔아 마련한 유아방의 주인은 이 학교 교사 자녀 5명이다. 이윤인 사자녀 5명이다. 이윤인 사자녀 5명이다. 이윤인 사자녀 5명이다.

교원부에서는 내년 이 런 유아방을 대도시 중심으로 40여개를 더 만들 계획이다. 역시 교내유아방에 아들(4)을 맡기고 있는 서울서초중 趙永淑교사(36)는 「해택」을 누리는 것은 물론 교사자신이지만 교원특

“아이와 함께 출퇴근... 심리적 안정”

교통불편 감수 轉補 희망자 쇄도



부천시내 교사의 자녀들인 삼지국교 병설유치원 병아리반 원아들이 선생님과 놀이를 하고 있다.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고민. 그러나 이를 이용하면 교사들은 이윤가를 더없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이들은 가끔 운동장에 나가 국제적 수준인 이 학교 태권도팀에서 오빠 언니의 동작을 흉내내는 재롱을 부리고 있다.

(沈揆先)